

#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 성장단계 및 정부지원 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수길\* · 현병환\*\*

##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설계
- IV. 실증 분석
- V. 결론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지원 활동에 성장단계를 조절 변수로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 또는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 기업 지원은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정부지원 활용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으며, 성장단계의 조절 효과의 경우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기업지원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성장단계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효과가 있으며,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정부 지원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중 최퇴기에 기업은 산업분야 및 기업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상태에 맞추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정부지원,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 성장단계, 정부지원활용, 조절효과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 학과 박사과정 (mukgid@naver.com)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 학과 교수, 교신저자(hyunvv@gmail.com)

---

---

# Effects of Government Business Support Projects on Corporate Growth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rowth stage and use of government support

Kim, Su gil\*  
Hyun, Byung-Hwan\*\*

---

---

**Abstract :** In this paper, the effect of government corporate support projects on corporate growth was analyzed, and the effect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or non-financial performance was empirically analyzed by using the growth stage as a modulating variable in government support activities.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government corporate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use of government support, a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rowth stage had a positive (+) effect on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aken together,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 corporate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the growth stage had a positive (+) effect on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was even greater. Accordingly, government support projects must be supported according to each company's growth stage, and during the decline, companies need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according to the state of the company through industry and corporate analysis, and it is expected to be meaningful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s business support project.

Key Words : Government support, financial support, non-financial support, growth stage, utilization of government support, regulatory effect

---

\* Su gil kim, Ph.D. program, Dept. of Business Consulting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mukgid@naver.com

\*\* Byung-Hwan Hyun, Professor, Dept. of Business Consulting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hyunvv@gmail.com

# I. 서론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혁신적 기업가가 이윤을 창조한다는 이론을 전개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에 기업이 있고, 기업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Schumpeter, 1961).

정부의 기업지원사업의 근거로 시장실패를 들고 있으며, 시장실패는 기업의 R&D에 내재하는 높은 불확실성과 사업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전유성(Appropriability)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R&D 투자가 적정 수준 이하에서 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Arrow, 1962; Pearce, 1983). 또한 외부효과(External Effect)에 대한 대응이 취약해서 혁신의 전유성이 낮은 데다, 작은 규모에 따른 R&D 투자에 대한 낮은 범위의 경제효과로 인해 R&D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난다(노용환, 2014).

자원기반 이론(Resource-Based Theory)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동일산업에서 경쟁기업 대비 높은 경쟁우위와 성과 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량이 된다(Wernerfelt, 1984; Barney, 1991; Mahoney, 1995). 또한 이러한 자원의 역량은 특정 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자들과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Rumelt, 1984). 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에 임하기 때문에 연령이나 규모가 비슷한 기업의 실패 여부는 내부 자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므로(Amit & Schoemaker, 1993) 국내 기업은 내부 자원의 한계로 어려움이 크며, 신생 기업일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장수덕 외, 2008).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사업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 경기변동, 외부효과 등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이 민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강정석, 2018).

최근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COVID-19 팬데믹 이후 각국의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고자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과 국민들의 일상을 유지 하고자 많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장기적 COVID-19로 인해 글로벌 공급체인망이 원활하지 못하고 실업 및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폭등과 같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지원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정부지원의 기업지원 사업 중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 및 정부지원 활용에 따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 질문 및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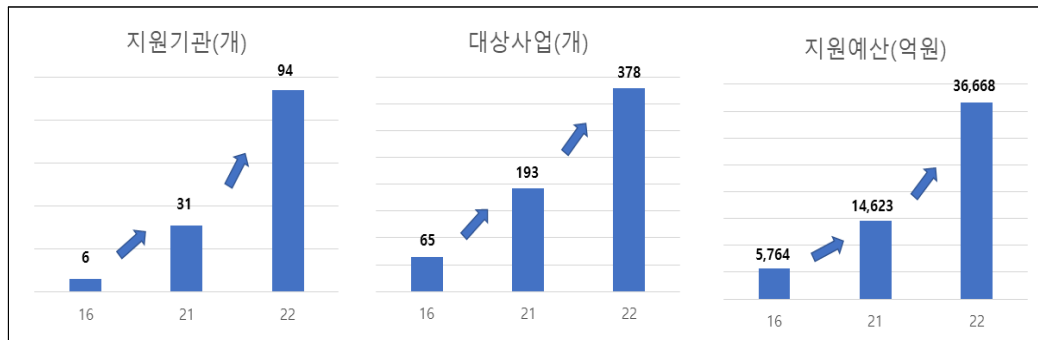
첫째,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정부 기업지원 사업의 성과는 기업 내부적 요인 (성장단계, 정부지원 활용)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정부는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시장실패 및 경기변동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으며 (강정석, 2018),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로 운영되는 기업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여 창업부터 사업화,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구축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기업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예산

그림 1을 살펴보면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37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예산의 경우 2022년 예산규모는 3조 6,668억 원으로 전년 2021년 1조 4,623억 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의 기업지원사업의 사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재무적 지원(융자, 20,220억 원, 55.1%), 사업화(9,132억 원, 24.9%), 기술개발(4,639억 원, 12.6%), 시설보육(1,549억 원, 4.2%), 창업교육(569억 원, 1.6%) 순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a).

정부 기업지원사업 유형을 보면 재무적 지원 및 사업화 부분의 예산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방향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하여 재무적 지원 및 매출 증가를 위한 사업화 관련 예산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사업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화	기술개발	용자	시설·보육	창업교육	멘토링	행사	합계
2022 예산	9,132	4,639	20,220	1,549	569	272	288	36,668
2022 예산	7,315	5,126	-	1,259	535.4	217	64.4	14,517

※ 출처 :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2022b)

선행 논문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R&D 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사업 모두 효과가 있다(Gupta & Govindarajan, 1984; Hanks & Chandler, 1994; Wang et al., 2019; El Mercurio, 2020; McWilliams & Siegel, 2000; Basso et al., 2018; 조하나·김준기, 2019; 안승구 외, 2017; 강희일, 2020 외 다수). 그러나 지원정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은 효과성은 높으나,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그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권혁상·황두희, 2019).

정부지원 사업의 구분한 것을 보면 재무적 지원으로는 자금지원, 조세감면 및 사업화 자금, 연구개발 지원 등이며(이정수, 2011), 비재무적 지원은 판로지원, 인력지원, 정보지원, 창업공간 지원, 장비지원 등으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윤효진 외, 2018).

## 1. 재무적 지원 제도

재무적 지원은 내부 자원이 부족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하는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Stevenson et al. 1994). 재무적 지원의 종류는 기술개발 자금 지원,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공동 R&D 지원, 투자유치 시설자금 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구희·원유호, 2015).

해외의 경우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과 창업 프로그램은 보조금 및 지원, 기업가 정신교육

등을 공공정책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다(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8).

유럽연합에서는 기업지원을 위한 직접적 자금지원 사업은 운영하지 않으며, 지방 또는 지역, 해당 국가의 은행, 벤처 캐피털 등을 통한 금융수단을 통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Isensee et al, 2020 ; De Marco et al, 2020).

영국은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RFP(Responsible Finance Providers)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Durst & Gerstlberger, 2021).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과 조세 지원 모두 중견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런 투자 촉진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기술역량이 우수한 집단은 재무적 지원의 보조금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기술역량이 낮은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안승구 외, 20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부의 조세와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직접 지원을 받는 집단이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을 포함한 간접지원을 받는 집단보다 R&D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접적인 기술지원과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로 얻어지는 지식 축적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영향으로 볼 수 있다(장수진 외, 2016). 또한, 조세 지원과 자금지원은 R&D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며, 이는 각 참여자들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해 R&D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장수진 외, 2016).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자금지원이 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추가적으로 유인 하였으며, 특허출원 등의 혁신 수준을 제고하였다고 분석하였고(Czarnitzki et al., 2011),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all & Van Reenen, 2000).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은 기업의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연구개발 투자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영업이익이 크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하나·김준기, 2019).

보조금을 수혜 받은 기업들이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연구 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조하나·김준기, 2019).

자원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재무적 지원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의 주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내부역량 및 경영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영훈 · 송유진, 2019).

다른 연구에서는 정부의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이병현 외, 2014).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이 재무적 지원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책자금 중심의 자금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기업의 영업 이익,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 개선과 매출 규모, 총 자산, 자기 자본 등 규모 확대 등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권혁상 · 황두희, 2019).

이렇듯 다양한 선행 논문에서 정부의 재무적 지원이 기업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정부 R&D 지원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 고용 증가, R&D 투자 증가 등의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업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는 유의하지 않거나 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오승환 · 장필성, 2020).

또 다른 논문에서도 정부지원사업이 기업 R&D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더라도 재무성과에는 기업의 자체 R&D 투자에서 기인한다고 주장도 있으며(김기완, 2008), 정부의 재무적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강정석, 2018).

최근 확산되는 펜더믹 상황하에 중소기업의 과도한 청산 및 실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Thomas philippon, 2020), 경제적 상황 하에 다양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재무적 지원이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H 1]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중 재무적 지원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 2]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중 재무적 지원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 3]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중 재무적 지원은 정부지원 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2. 비재무적 지원 제도

비재무적 지원은 창업가에게 필요한 인적자원, 금융, 전문적 지식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정부 정책이 창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환경의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Isenberg, 20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부의 비재무적 지원은 정부 기술 지원 및 지도, 인력양성과, 창업 공간 제공, 기술정보 제공과, 관련 교육 등의 사업화와 연계되는 비재무적 지원을 다루고 있다(권혁상·황두희, 2019; 이정수, 2011). 기업은 한정된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무적 지원 및 비재무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경쟁우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Muhammad and Shuangjie, 2021).

그동안 정부지원 사업의 재무적 지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신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비재무적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비재무적 지원과 기업의 혁신활동을 연계하는 연구도 있으며, 금융에 대한 접근성은 기업 혁신에 중요한 요소로서 정부의 비재무적 지원에 긍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Chundakkadan and Sasidharan, 2020). 정부의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기술애로 지원, 정보 제공, 인력 지원 등 비재무적인 지원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재무, 인사, 마케팅 및 사업다각화, 신성장 아이템 발굴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진단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사업화의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Lee and Kim, 2015).

중국의 경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재무적 지원으로 마케팅, 시장 정보, 통관 및 세금, 인력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들이 더 빠르게 해외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Xia et al, 2018). 정부의 R&D 지원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정부 기술지원 및 지도, 기술 정보제공, 기술인력 및 교육 연수 지원,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매, 마케팅 지원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신현우, 2010).

기업 비재무적 지원은 정부가 자원이 부족한 예비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인프라(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정경희, 2020). 다른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지원의 경우 자금지원, 시설/장비 지원, 네트워크 지원, 멘토링 지원, 컨설팅 지원, 마케팅 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등을 포함하여 구분하기도 한다(김성식 외, 2020).

판로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인력 지원, 정보지원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업이 원가절감에 치중하기보다 기술개발과 혁신 창출이 가능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부진한 제도(인력지원, 정보지원 분야)는 개선하여, 기술력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윤효진 외, 2018). 다른 연구에서는 창업 인프라 제공(입주공간, 개발 장비 등),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창업자 발굴, 창업 사전교육,



네트워크), 경영지원(컨설팅, 멘토링, 교육 훈련 등), 투자연계 및 사업화(투자자 매칭, 투자 유치, 판로)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창업보육 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하였다(NBIA, 2010).

다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창업보육 모델로는 입주기업 선정에서 사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 지원이 기본적 운영 모델로 보았다(Mayuri, 2020).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단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입주 시설 및 공간 등의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는 단계이며, 다음 단계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입주기업의 성장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며,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지원 단계로서 입주기업의 요구에 맞는 사업관리를 개발하고 연결하여 주는 단계로 정의하였다(박상호, 2021).

국내의 경우 창업보육센터를 통하여 개인 및 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 지원 및 기술지도, 세무, 경영 등 지원을 통해 창업 위험 회피 및 성장을 유도하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창업보육협회, 2020). 많은 국가에서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지원을 통해 혁신적이고,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Mian, 2011), 비재무적 지원에 있어서도 R&D 부분에 집중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지원대상 기업이 성장통 극복이 가능한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적합한 지원수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다각적인 지원요소를 고려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유화선 외, 2021).

기업의 성장 정체는 기업 및 산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애로, 경영역량 미흡, 성장동력 상실, 사업화 및 지속적인 시장 창출 장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기술애로 이외의 다각적인 요인에 대한 심층진단 및 설루션 도출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기업의 경영환경 및 시장분석을 통해 애로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유화선 외, 2021).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인력 등 직접 지원과 병행하여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외부 전문가 지원을 통해 명확한 경영진단과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윤동민 외, 2020).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비재무적 지원은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정부 기업지원 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H 4]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중 비재무적 지원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 5]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중 비재무적 지원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 6]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중 비재무적 지원은 정부지원 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3. 정부지원활용

정부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자원이 부족한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는 외부자원의 활용 여부가 기업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상문·이병헌, 2006). 법적 기준에 근거한 중견기업 내에서도 상당한 규모 격차와 기술역량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국내 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기술역량이 정부 지원의 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조절 효과가 해외 기업 표본을 이용한 연구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 연구하였다(안승구 외, 2017).

다른 연구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부채비율은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정부 보조금을 수혜 받은 기업들과 받지 않은 기업들 전반에 걸쳐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하나·김준기, 2019).

전체 조직과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분석 결과 정부의 투자는 응용 단계와 개발단계 연구들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정부 R&D 투자가 많을수록 혁신성고를 촉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황유나 외, 2019). 정부 R&D 수혜는 경영효율성이 낮은 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경우 기술적 성과는 우수하나, 이것이 경영 효율성과는 관련성이 낮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이와 같은 역선택의 문제는 시장 내 한계기업이 정부 R&D 자금 획득에 유리한 기술성을 부각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에 판단되었다(김근희·곽기호, 2018).

정부지원을 활용한 디자인 활용기업의 인력양성 지원, 자금지원, 연구개발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이 기업성과, 즉 기업의 생산과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자금지원을 통해 수익성, 재정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등 경영성과 전반에 개선 효과가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신범철·김경환, 2015).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지원 활용이 성과창출 또는 성과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가 많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활용이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을 제한하고 좀비기업을 양성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며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활용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며 정부의 기업지원 활동은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H 7] 정부의 기업지원사업의 정부지원 활용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 8] 정부의 기업지원사업의 정부지원 활용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4. 성장단계

기업의 대표 성장단계 모형은 제품개발 단계, 산업화 단계, 성장단계, 안정화 단계인 4단계 모형이며 각 단계별로 핵심적인 경영문제와 성공요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Kazanjian, 1988).

다른 분류를 보면 5단계 창업기, 생존기, 성장기, 확장기, 성숙기로 분류하였고(Scott & Bruce, 1987), 다른 분류에서는 기업을 성장 초기단계와 성장 후기단계로 제시하였다(Dodge et al., 1994). 다른 분류에서는 3단계로 창업, 성장, 성숙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되기도 하였다(임성준·김장권, 2011; 장수덕, 2007; Chen, 2004).

국내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실태조사에서 구분하고 있는 창업기, 초기 성장기, 고도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5단계 유형으로 기업 성장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맞추어 성장단계를 재분류하여 사용되고 있다(강원진 외, 2012 김영배·하성욱, 2000 박성호·양동우, 2015; 이병헌, 2005; 전향화 외, 2010). 이론적 연구에서는 조직 수명주기 이론에 따라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이 존재하고, 이를 분석하여 성공 요인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Kazanjian & Drazin, 1990).

그 외 조직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는 조직 진화론, 변증법적 이론, 전략적 선택론 등이 있으며 수명주기 이론은 기업성장단계로 연계하여 기업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전향화 외, 2010). 기업성장단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장단계 구분을 위한 기준이 다소 상이할 뿐, 각 단계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전략 및 경영 활동이 존재하며, 단계별 중요한 성공 요인이 존재함을 입증하고 있다(정경희, 2020).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기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안승구, 2017), 내생적 성장이론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유한 내부역량이 경영성과, 특히 재무적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O'Regan et al., 2006; 김윤정 외, 2018), 정부지원자금 등의 외부요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인 내부 요인, 기업의 성장단계와 같은 산업 요인, 그리고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훈·송유진, 2019).

유사한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나며(심대석, 2010), 경제적 성과인 매출 증대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유홍림·박성준, 2006).

기업경영 관점에서도 기업의 수명주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며 매출액, 자본적 지출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성장단계에서 쇠퇴단계로 변화할수록 감소하게 된다(Anthony and Ramesh, 1992).

다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제도 분석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며(최종열, 2010; 서창수, 2002), 기업은 경영에 있어 수준 높은 위험에 직면하여도 뛰어난 흡수 및 해결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크다면 여러 이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Lecraw, 1984; March, 1991; Erramilli & Rao, 1993; Grant 1996).

정부 R&D 지원 단계별 사전, 중간, 사후 단계에 따라서도 혁신성과 등이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김덕용·배성주, 2021)

성장단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 본격화되고, 매출의 발생 및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본격적인 판매를 위한 마케팅 계획이 핵심 요인이며, 기업 성장에 있어 인재 확보와 제품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김홍철·이선규, 2014; 구자원·이윤철, 2008).

기업의 수명주기 또는 성장단계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왕림립·장석주(2019)에 따르면,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가 경영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현주(2018)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정부 지원의 효과가 상이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정부지원 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H 9] 정부 기업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 10] 정부 기업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5. 재무적지원 성과

재무적 경영성과는 단기성과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비재무적 경영성과는 장기적 성과측정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Gupta & Govindarajan, 1984), 다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 측정은 매출액, 투자수익률, 수익성, 시장점유율 등이 활용되며, 비재무적 성과는 고용률, 창업만족도 등으로 측정하는 것을 주장하였다(Hanks & Chandler, 1994).

정부의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직접 제공되는 자본, 수입, 현물 보조금은 민간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는 반면 정부보증 정책을 통한 간접지원은 직접 지원에 비해 그 효과가 미약하며, 정부지원은 민간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제시하였다(Wang et al., 2019).

정부가 스타트업에 기업지원을 제공한 결과 스타트업에 대한 자본조달, 매출 창출, 생존율 및 고객 포트폴리오 증가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El Mercurio, 2020),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가 지향성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Nakku et al., 2020).

정부의 재무적 지원 및 비재무적 지원은 재무적 성과와 비용 주도 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Muhammad & Shuangjie, 2021). 기업의 단기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재무적 지표로 수익성의 경우 이익, 판매 이익률, 투자 이익률 등이 주로 사용되고 기업의 성장성은 총 자산 증가율 매출 증가율 등을 제시하였다(McWilliam & Siegel, 2000).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 자금지원을 통해 정부지원은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산업 생태계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Basso et al, 2018).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은 기업의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연구개발 투자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재무적 특성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연구보조금의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도 보완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하나·김준기, 2019).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며,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 표본에서 정부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고 유의미하였으며,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중견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안승구, 2017).

다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혁신성에 대해 성과분석을 진행하여 기업의 자산 증가율과 부채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 정부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오승환·김선우, 2017; 김덕용·배성주, 2021).

정부지원규모가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규모는 사업화 성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금이 증가할수록 사업화성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수지·김태윤, 2015).

다른 연구에서는 정부 재무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칭을 유도하거나 논문, 특허 같은 자료를 사업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협력의 연속성 같은 행동 부가성 지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안준모, 2022).

정부지원 사업의 R&D 투자의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생산적임을 확인하는 결과로 보았다(강희일, 2020).

선행연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인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하였다(Hall and Lerner, 2009).

## 6. 비재무적지원 성과

비재무적 성과는 과정 중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측정지표로 역할을 하므로 장기적인 재무성과의 양호한 예측정보로 사용되며(Niven, 2002), 다른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성과는 직무 만족도, 고객 만족도 등의 지표를 사용하며 기업의 전략과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Kaplan, 1984).

다른 연구에서는, 정부의 비재무적 지원 중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금 및 인력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Lin et al., 2006).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지표로는 고객 유치, 유치된 고객의 유지, 브랜드 인지도, 창업자의 창업 결과에 대한 만족, 이직률, 후속투자유치의 유무, 고용증가 여부 등이 해당한다(김선우·정효정, 2019).

정부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투자, 인적자원, 혁신, 경쟁력 및 국제화 측면에서 지원받은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Rosario et al., 2022). 인력 지원을 포함한 더 큰 범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인력정책의 필요성과 고도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정부 지원자금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벤처정책을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김윤정 외, 2018).

종업원이 증가한 벤처기업이 정부 지원자금 활용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결과를 보였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R&D 인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다수 있었으나 종업원 증가율이 높은 벤처기업의 정부 지원자금 활용이 긍정적 의미를 미치는 결과는 거의 없었다(김윤정 외, 2018).

비재무적 지원 제도 중 판로지원은 재무성과인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신사업분야 진출, 제품의 다양화, 제품의 품질향상에는 부(-)의 영향을 주었다(윤효진 외, 2018).

정보지원은 신사업분야 진출과 제품의 다양화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인력지원은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에는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전체 매출액, 제품의 다양화, 제품의 품질향상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효진 외, 2018).

중국 해외진출 기업의 기업지원 성과에서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Xia et al., 2018).

정부 R&D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들에게서 고용 자체는 늘어났지만 고속런 고기술 인력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정부 R&D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및 고용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오승환 · 장필성, 2020).

비재무적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정보교류 서비스를 받거나, 기업 요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조사분석 또는 기업 요구에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지원받은 기업이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더 큰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상진 외, 2017).

비재무적 성과는 직무 만족도, 고객 만족도 등의 지표를 사용하며 기업의 전략과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Kaplan, 1984).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활동은 기업 평판, 이미지, 직원 만족도, 충성도 제고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Liu et al., 2022). 다른 선행 논문에서는 비재무적 성과로 지식서비스는 창업교육이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며, 제조는 창업 멘토링과 창업인프라(공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매출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정경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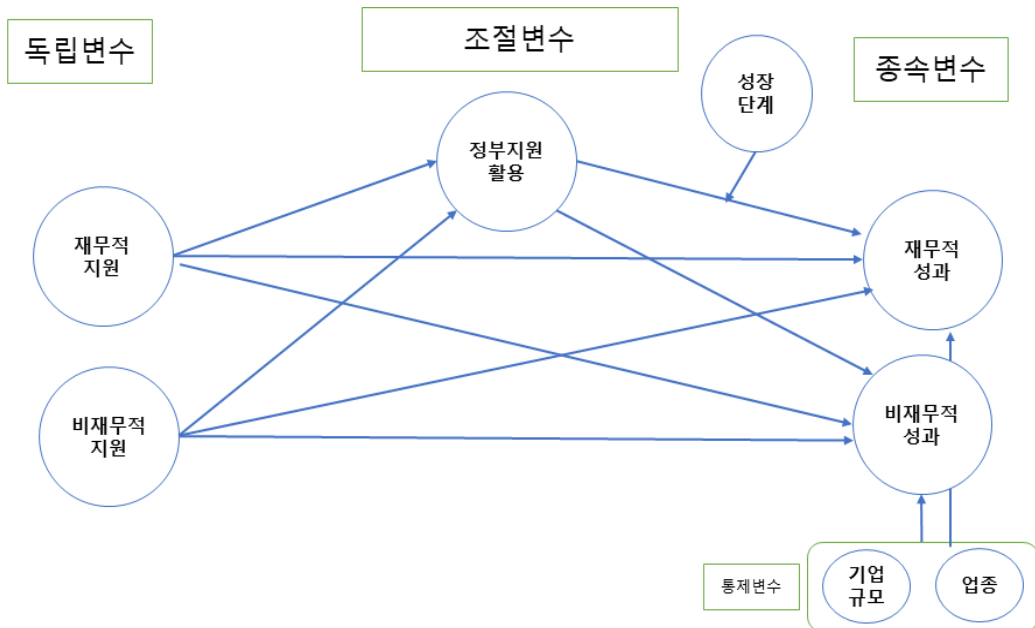
### Ⅲ. 연구방법의 설계

#### 1. 연구모형 및 가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은 재무적 성과 또는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되었고, 최근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은 강화되는 추세로 어떤 내외부 요인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모델의 관점에서 외부 변수인 정부지원 활용과 내부 변수인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변수인 정부지원 활용 및 내부 변수인 성장단계가 기업의 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어떻게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외부변수인 정부지원활용 및 내부변수인 성장단계의 조절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델을 수립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방법

앞서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모형을 통해 제시된 연구모형의 변수에 대해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조작적 정의를 제안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종속변수로 기업의 성과지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독립 변수는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을 구분하여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연구의 주요 이론적 중심으로 제안한 외부 변수 정부지원 활용 및 내부 변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분석의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통제 변수를 설정하여,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있어,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변수로, 기업의 규모, 업종을 추가하여 독립변수를 통한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기업은 경험이 축적될수록 기업이 경영 위험에 직면하여도 뛰어난 해결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크다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선행 논문을 근거로 하였다(Lecraw, 1984; March, 1991; Erramilli & Rao, 1993; Grant, 1996).

## 3. 분석방법

SPSS 28.0 프로그램 및 SmartPls 3.0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판별 타당성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하여 정부 지원 활용 및 성장단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절 효과 분석을 위해 SmartPls 3.0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설문은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서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 분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독립 변수	재무적 지원	상대적으로 내부적 자원이 부족한 기업에게 정부의 재무적 자원을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향상 시키는 요인	Stevenson <i>et al.</i> (1994), 김구희·원유호(2015),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2018), Isensee <i>et al.</i> (2020), De Marco <i>et al.</i> (2020), Durst & Gerstlberger(2021), 안승구 외(2017), 장수진 외(2016), Czarnitzki <i>et al.</i> (2011), Hall and Reenen(2000), 조하나 김준기

구 분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2019), 이영훈·송유진(2019), 이병헌 외(2014), 권혁상·황두희(2019), 오승환·장필성(2020), 김기원(2008), 강정석(2018), Thomas philippon(2020)
비재무적 지원	기업에게 필요한 인적자원, 금융, 전문적 지식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부 정책을 통하여 조달하여 경영성과를 향상 시키는 요인	Isenberg(2011), 권혁상·황두희(2019), 이정수(2011), Muhammad & Shuangjie(2021), Chundakkadan & Sasidharan(2020) Lee & Kim(2015), Xia <i>et al.</i> (2018), 신현우(2010), 정경희(2020), 김성식 외(2020), 윤희진 외(2018), NBIA(2010), Mayuri(2020), 박상호(2021), Mian(2011), 유화선 외(2021), 윤동민 외(2020)
조절 변수	정부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내부자원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외부 자원의 반복적 활용을 통하여 기업을 성장시키는 요인	박상문·이병헌(2006), 안승구 외(2017), 조하나·김준기(2019), 황유나 외(2019), 김근희·곽기호(2018), 신범철·김경환(2015) 장현주(2018), 윤상만 외(2018)
성장단계	기업의 성장 단계를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5단계로 구분	Kazanjian,(1988), Scott & Bruce(1987), Dodge et. al(1994), Kazanjian, R. K, & Drazin, R.(1990), Lecraw, D. J.(1984), O'Regan, N., et. al.(2006), Chen, H. M.(2004), Grant, R. M.(1996), 정경희(2020), 이영훈·송유진(2019), 안승구(2017), 장현주(2018), 왕립립·장석주(2019)
종속 변수	재무적 성과	매출수익률, 당기순이익률, 자산증가율 등과 같이 계량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성과 Gupta & Govindarajan(1984), Hanks & Chandler(1994), Wang <i>et al.</i> (2019), Ell Mercurio(2020), Nakku <i>et al.</i> (2020), Muhammad & Shuangjie(2021), McWilliams & Siegel(2000), Basso <i>et al.</i> (2018), 조하나·김준기(2019), 안승구(2017), 오승환·김선우(2017), 이수지·김태운(2015), 강희일(2020)

구 분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비재무적 성과	제품·서비스 만족도, 고객 만족도, 인력지원, 교육 등과 같이 계량화가 어려운 성과	Niven(2002), Kaplan(1984), Lin <i>et al.</i> (2006), 김신우·정효정(2019), 김윤정 외(2018), 윤희진 외(2018), 오승환·장필성(2019), 배상진 외(2017), Liu <i>et al.</i> (2022), Rosario <i>et al.</i> (2022), Xia <i>et al.</i> (2018), 박희상 외(2020), 이현식(2020), 권혁상·황두희(2019)
통제변수	기업 업종 및 기업 규모	Lecraw(1984), March(1991), Erranilli & Rao(1993), Grant(1996)

## IV. 실증분석

### 1. 자료의 수집 및 응답자 일반현황

본 연구를 위해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2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 310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표본자료는 SPSS 28.0와 SMARTPL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대상 기업을 보면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기에는 기업 설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기업을 포함하여 설문을 진행 하였으며, 기업의 규모에서 중소기업이 7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20%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표자 남성이 87.1%, 대표자 여성이 12.9%로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가 3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분야는 기계, 장비, 금속 분야가 19.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전기, 전자, 통신 분야가 16.1%로 그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구분	변수	빈도	퍼센트
대표자 성별	남	270	87.1
	여	40	12.9
대표자연령	20대	4	1.3
	30대	29	9.4
	40대	42	13.5
	50대	126	40.6
	60대이상	109	35.2
기업의 업력	5년미만	34	11
	5~10년미만	48	15.5
	10~15년미만	54	17.4
	15~20년미만	46	14.8
	20년이상	128	41.3
사업분야	기계,장비,금속	60	19.4
	식품,바이오	36	11.6
	전기,전자,통신	50	16.1
	섬유,의류	10	3.2
	광학제조	5	1.6
	인쇄	9	2.9
	기타	140	45.2
기업의 규모	중소기업	226	72.9
	대기업	62	20
	기타	22	7.1
기업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117	37.7
	부산광역시	24	7.7
	대구광역시	10	3.2
	인천광역시	15	4.8
	광주광역시	9	2.9
	대전광역시	11	3.5
	울산광역시	8	2.6
	경기도	65	21
	충청북도	5	1.6
	강원도	5	1.6
	충청남도	7	2.3
	전라북도	4	1.3
	전라남도	7	2.3
	경상북도	12	3.9
	경상남도	10	3.2
	세종특별자치시	1	0.3

## 2. 가설의 검증

### 2.1.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을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많이 사용되는 Smartpls 3.0을 이용하였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사용상의 편리성이 높고 비교적 작은 표본 크기에도 모델 추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차의 최소화를 통해 예측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구동모, 2015).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관계성 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 정도인 상관계수는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상관은 강하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약하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대부분 0.8 이하로 산출되어 다중 공선성을 의심할 측정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	정부지원 활용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성장 단계
재무적지원	1					
비재무적지원	.610**	1				
정부지원활용	.719**	.574**	1			
재무적성과	.612**	.645**	.568**	1		
비재무적성과	.579**	.666**	.504**	.689**	1	
성장단계	0.031	0.087	0.036	-0.034	-0.054	1

### 2.2. 신뢰성 및 수렴타당성 분석

정부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성 및 수렴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을 위하여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고자 Cronbach  $\alpha$ 값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중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모형에 맞게 측정항목을 측정하였는지 검증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복합(합성) 신뢰도(CR)의 값과 평균 분산 추출값(AVE)을 분석하였다.

집중타당도는 외부적재치와 평균분산추출값(AVE)으로 평가하였다.

외부적재치는 잠재변수와 각 요인과의 상관관계로 0.7 이상이면 만족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Bagozzi & Yi, 1992). 본 연구에서 외부적재치는 0.683~0.899로 대부분 0.7 이상을 만족하는 수준이다.

평균분산추출값(AVE)도 0.5 이상이면 바람직한 집중 타당도를 형성한 것으로 본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 평균분산추출은 0.526~0.776로 모두 0.5 이상을 만족하는 수준이다.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여 분산팽창인자(VIF)가 5 미만으로 공선성에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신건권, 2018). 복합(합성) 신뢰도(CR)값은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신뢰도 수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Werts et al. 1974; Nunally & Bernstein, 1994). 본 연구의 분석결과 변수의 CR값은 0.845~0.925로 모두 만족하는 수준이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의 경우 0.7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2011), 본 연구의 분석의 결과 변수의 Cronbach  $\alpha$ 값은 0.711~0.909로 신뢰도가 우수한 수준으로 보인다.

추가적 분석을 통하여 통제 변수(기업규모, 업종)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 변동이 없었으며, 통제 변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정부지원사업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잠재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외부적재치	평균분산추출(AVE)	크론바알파	복합신뢰도(CR)
재무적지원	재무적지원1	0.683	0.526	0.850	0.886
	재무적지원2	0.689			
	재무적지원3	0.763			
	재무적지원4	0.756			
	재무적지원5	0.741			
	재무적지원6	0.732			
	재무적지원7	0.710			
비재무적 지원	비재무적지원1	0.751	0.579	0.909	0.925
	비재무적지원2	0.782			
	비재무적지원3	0.738			
	비재무적지원4	0.775			
	비재무적지원5	0.772			
	비재무적지원6	0.736			
	비재무적지원7	0.771			
	비재무적지원8	0.799			
	비재무적지원9	0.722			
정부지원활용	정부지원활용1	0.801	0.650	0.731	0.848
	정부지원활용2	0.843			
	정부지원활용1	0.774			
성장단계	성장단계1	0.883	1.000	1.000	1.000

잠재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외부적재치	평균분산 추출(AVE)	크론바 알파	복합 신뢰도(CR)
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1	0.880	0.776	0.711	0.874
	재무적성과2	0.882			
비재무적 성과	비재무적성과1	0.815	0.645	0.725	0.845
	비재무적성과2	0.790			
	비재무적성과3	0.804			

### 2.3. 판별타당도 분석

타당도 중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유사한 개념의 변수들이 서로 다른 변수로 구별이 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구성 개념을 측정한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한다. 각 변수의 판별 타당성은 측정오차로 나타나는 분산에 대비한 속성의 분산 정보를 나타내는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평균 분산 추출(AVE)의 제곱근을 대각 위치에 구성 개념들과의 대응되는 상관계수들을 그 외 영역에 배치하여 비교하여 측정한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에 대한 판정은 대각 위치의 값이 그 외 값들보다 더 커야 한다(Ling et al., 2020).

분석의 결과표에서 대각에 위치한 값이 그 하위 값보다 모두 크므로 분석결과 판별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추가적 분석을 통하여 통제변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 변동이 없었으며, 통제변수(기업규모, 업종)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비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지원	성장단계	재무적 성과	재무적 지원	정부지원 활용
비재무적성과	0.803					
비재무적지원	0.663	0.761				
성장단계	-0.138	-0.130	1.000			
재무적성과	0.689	0.636	-0.093	0.881		
재무적지원	0.580	0.595	-0.130	0.616	0.725	
정부지원활용	0.508	0.566	-0.112	0.569	0.725	0.806

※ 대각선은 각 변수에 대한 AVE 값의 제곱근을 의미, 대각선 아래 값들은 변수간의 상관 계수 값을 나타냄

### 3. 가설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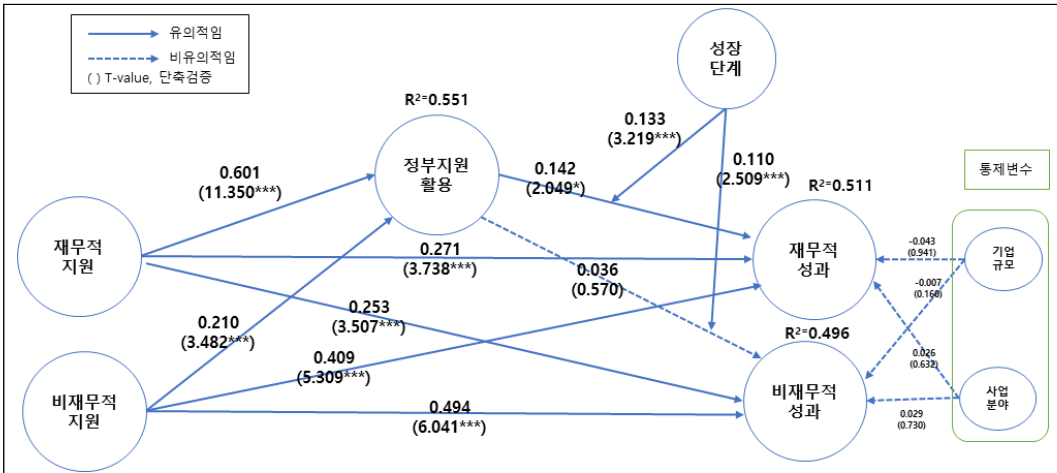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정부지원 사업의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의 성장단계와 정부지원 활용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2의 연구모형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PLS를 활용하여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연구모형에 대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보이며, 부트스트랩 방법을 활용하여 구조모형의 경로 분석을 진행하여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PLS에서는 모형 적합도 지수를 대신하여 복합 신뢰도(CR) 계수와 결정계수(R<sup>2</sup>)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R<sup>2</sup> 값으로 종속변수의 설명의 정도를 나타내며, 높을수록 좋은 연구모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2과 같다. 중간 변수인 정부지원 활용 R<sup>2</sup> 값은 0.551로 나타냈으며, 종속변수인 재무적 성과 R<sup>2</sup> 값은 0.511이며, 비재무적 성과 R<sup>2</sup> 값은 0.496로 구조모형 전체적인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p<0.001, \*\*.p<0.01, \*. p<0.05

〈그림2〉 연구모형 분석결과



#### 4. 구조모형을 통한 가설의 검증

연구가설에 대해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편차	T-값	P-값	결과
H1	재무적 지원 -> 재무적 성과	0.271	0.072	3.738	0.000	채택
H2	재무적 지원 -> 비재무적 성과	0.253	0.070	3.507	0.000	채택
H3	재무적 지원 -> 정부지원 활용	0.601	0.053	11.350	0.000	채택
H4	비재무적 지원 -> 재무적 성과	0.409	0.077	5.309	0.000	채택
H5	비재무적 지원 -> 비재무적 성과	0.494	0.082	6.041	0.000	채택
H6	비재무적 지원 -> 정부지원 활용	0.210	0.060	3.482	0.001	채택
H7	정부지원 활용 -> 재무적 성과	0.142	0.071	2.049	0.040	채택
H8	정부지원 활용 -> 비재무적 성과	0.086	0.071	0.570	0.569	기각

가설 검증 결과는 표 7에 정리하였으며, 가설 1부터 ~ 가설 7 까지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정부지원 활용을 통한 비재무적 성과에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처음 분석에서는 정부지원 활용이 재무적 성과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추가적 분석을 통하여 정부지원 활용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이 되었다. 이는 통제변수 기업규모 및 업종이 전체 통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성과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 1은 재무적 지원은 경로계수가 0.271, t값은 3.738에 유의한 수준으로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재무적 지원은 경로계수가 0.253, t값은 3.507에 유의한 수준으로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3은 재무적 지원은 경로계수가 0.601, t값은 11.350에 유의한 수준으로 정부지원 활용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4는 비재무적 지원은 경로계수가 0.409, t값은 5.309에 유의한 수준으로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5는 비재무적 지원은 경로계수가 0.494, t값은 6.041에 유의한 수준으로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6은 비재무적 지원은 경로계수가 0.210, t값은 3.482에 유의한 수준으로 정부지원 활용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7은 정부지원 활용은 경로계수가 0.142, t값은 2.049에 유의한 수준으로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8은 정부지원 활용은 경로계수가 0.036, t값은 0.570에 유의하지 못하여 비재무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주어 가설이 기각되었다.

정부지원사업과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부지원 활용 및 성장단계의 조절 효과에 대하여 검증은 실시하였다. 추가적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변동이 없었으며, 통제 변수의 영향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설 9 정부지원 활용 및 성장단계의 재무적 성과 경로계수는 0.133에 t값은 3.219, P값은 0.001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설 9-1 성장단계의 재무적 성과 경로계수는 0.022에 t값은 0.507, P값은 0.612로 유의하지 못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10 정부지원활용 및 성장단계의 비재무적 성과 경로계수는 0.110에 t값은 2.509, P값은 0.012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설 10-1 성장단계의 비재무적 성과 경로계수는 -0.021에 t값은 0.560, P값은 0.575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의 결과 보면 정부지원 활용 및 성장단계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며,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효과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재무적 성과에 더 크게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편차	T-값	P-값	결과	효과 크기 (f <sup>2</sup> )	
H9	정부지원* 성장단계	->	재무적성과	0.133	0.042	3.219	0.001	유의	0.037
H9-1	성장단계	->	재무적성과	0.022	0.041	0.507	0.612		
H10	정부지원* 성장단계	->	비재무적성과	0.110	0.043	2.509	0.012	유의	0.024
H10-1	성장단계	->	비재무적성과	-0.021	0.043	0.560	0.575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부의 지원사업의 활용 효과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중 재무적 지원은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정부지원 활용 모두에 유의하며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을 채택하였다.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중 비재무적 지원은 재무적 지원은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정부지원 활용 모두에 유의하며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정부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사업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Gupta & Govindarajan, 1984; Hanks & Chandler, 1994; Wang et al., 2019; El Mercurio, 2020; McWilliams & Siegel, 2000; Basso et al., 2018; 조하나·김준기, 2019; 안승구 외, 2017; 강희일, 2020 외 다수).

정부지원 활용의 경우 재무적 성과는 유의하며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비재무적 성과는 유의적이지 못하여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선행 논문 중 일부 연구에서 정부지원 활용이 기업의 규모 또는 기술역량 차이, 지원 방법 등에 따라 정부지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안승구, 2017; 김수길·현병환, 2022).

정부지원 활용 및 성장단계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며,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효과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재무적 성과에 더 크게 조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재무적 성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연구결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Gupta & Govindarajan, 1984).

본 연구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점은 아래와 같다.

우선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최근 COVID-19 및 세계경제 침체 등의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상황하에 정부 기업 지원 사업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지원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안승구 외, 2017; 심대석, 2010), 성장단계의 기업은 매출 및 고용인력이 증가하게 되며 성장을 지속하게 되고, 어느 순간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인력이 감소하는 등의 상태를 나타내며 쇠퇴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의 성장단계를 파악하고 해당 단계에 맞추어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 및 영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사업 설계

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벤처창업 실태조사의 5단계로 분류를 기준으로 본다면 창업기, 초기 성장기 등은 인력 확보 및 채용 조달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이고, 고도성장기 및 성숙기 등에서는 유통 및 마케팅, 해외 시장 진출과 같이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로 나아가는 것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쇠퇴기에는 산업분석과 기업의 업력 및 상태 진단을 통하여 해당 산업분야가 쇠퇴기 인지, 기업 자체가 역량의 한계로 인한 쇠퇴기 인지를 진단하고 산업 분야를 유지할지 다른 산업으로 이전하는 등의 맞춤형 지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의 재무적 지원은 단기적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재무적 성과를 증가시키지만, 비재무적 성과는 장기적 성과로 그 변화의 폭이 적을 수 있으나 추후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비재무적 지원을 통한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협력 공유의 가치가 조직에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정부 기업지원 사업을 재무적 지원 및 비재무적 지원으로 분류하고 정부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정부지원 활용 및 성장단계의 조절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기업지원받은 기업 성과의 증가 여부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로 성과의 변화에 내부역량 요인(성장단계)과 외부요인(정부지원 활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 이론적 배경에 뒷받침이 될 것으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여 COVID-19 이후 기업들의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 기업 지원사업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기업지원 사업의 결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며(Gupta & Govindarajan, 1984; Hanks & Chandler, 1994; Wang et al., 2019; El Mercurio, 2020; McWilliams & Siegel, 2000; Basso et al., 2018; 조하나·김준기, 2019; 안승구 외, 2017; 강희일, 2020 외 다수), 정부지원 활용의 경우에는 반복적 정부지원을 통한 지원은 그 효율성이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안승구 외, 2017; 김수길·현병환, 2022).

성장단계의 경우 기업의 단계에 따라 다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보다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진단 및 성장단계에 따른 다른 지원이 효율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도 학술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먼저 본 연구는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회수된 349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310부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연구결과의 불완전성을 보인다. 그리고 설문대상에 있어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혼재되어 기업규모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 연구를 진행한다면 대상의 구분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지원 효과에 대한 지속적 추적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정부지원 수혜로 기업성장을 보이는 시차(Time lag)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제시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선 표본수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겠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산업분류 및 시차를 고려하는 등 연구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COVID-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체인망 붕괴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어려운 대외 경제 환경속에서 국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내외부 환경 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국내 문헌

- 강원진·이병현·오왕근(2012).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외부자원 활용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7권, 제1호, pp35-45.
- 강정석(2018), “자동화 및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제21권, 제2호, pp738-766.
- 강희일(2020), “ICT 정부 R&D 지원이 매출·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기술혁신학회지」, pp146-158.
- 구동모(2015). “기초 조절 매개효과 분석 연구방법론”, 서울: 창명
- 구자원·이윤철(2008). “성장단계별 선택, 학습, 조정 메커니즘 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6호, pp2819-2856.
- 권혁상·황두희(2019), “정부 R&D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22권, 제6호, pp1107-1137.
- 김구희·원유호(2015),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산업별 기업지원 성과 영향요인 분석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2호, pp31-51.
- 김근희·곽기호(2018), “정부의 벤처기업 R&D 지원에서의 역선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경영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21권, 제4호, pp1366-1385.
- 김기완(2008), “정부 R&D 보조금의 기업성장에 대한 효과분석”, 「KDI 연구보고서」.
- 김덕용,배성주(2021), “벤처기업의 정부 R&D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연구」, 제29권, 제4호, pp95-124.
- 김선우·정효정(2019),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231호, pp1-32.
- 김성식·전병훈·윤성임(2020),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6호, pp95-114.
- 김수길·현병환(2022),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정부지원 활용 및 흡수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25권, 제3호, pp449-476.
- 김영배·하성욱(2000),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대한 실증 조사: 핵심 성공요인, 환경특성, 최고경영자 역할과 외부자원 활용”, 「기술혁신연구」, 제8권, 제1호, pp125-153.
- 김윤정·서윤교·홍정임(2018),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 지원자금 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21권, 제2호, pp636-662

- 김홍철·이선규(201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핵심 성공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0호, pp1-20.
- 노용환 (2014), “중소기업 지원형 R&D 사업의 효과 분석”,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 박상문·이병헌(2006), “외부자원 활용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28권, 제2호, pp181-206.
- 박상호(2021), “창업보육센터 관리자의 창업지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입주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 박성호·양동우(2015). “벤처기업 창업환경 및 기업성장단계가 경영 애로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291-299.
- 배상진·고창룡·설성수(2017), “맞춤형 정보분석의 중소기업 지원 수단 적합성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제20권, 제1호, pp81-102.
- 서창수(2002), “한국벤처기업 경영패턴의 변화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 신건권(2018),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 신범철·김경환(2015),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성과분석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31-155.
- 신현우(2010),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지원제도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기술혁신연구」, 제17권, 제2호, pp81-107.
- 심대석(2010), “정부의 R&D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 안승구(2017), “기술기반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정책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안승구·김정호·김주일(2017),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중견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기술혁신학회지」, 제20권, 제3호, pp546-575.
- 안준모(2022), “정부의 기술혁신 재정지원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연구”, 「기술혁신연구」, 제30권, 제1호, pp57-88.
- 오승환·김선우(2017),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STEPI Insight」, 제211호, pp1-27.
- 오승환·장필성(2020), “정부 R&D 지원이 제조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 「기술혁신학회지」, 제23권, 제5호, pp941-966.
- 왕림림·장석주(2019), “연구개발·투자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중국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제21권, 제1호, pp35-53.
- 유홍림·박성준(2006),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회」, pp963-984.
- 유화선·김윤명·정도범(2021), “정부 지원이 소재부품 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에 미치는 영향:

- PSM-DID 결합모형을 활용한 정책효과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제24권, 제5호, pp871-890.
- 윤동민·정해일·박근완·이상열·이재광(2020),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효과분석 (2008-2017): 컨설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33권, 제9호, pp1597-1623.
- 윤상만·이유환·서영욱(2018), “정부정책과 내부혁신요인에 따른 기업혁신활동 연구 : 제조업과 서비스업 집단분석”, 「기업경영연구」, 제25권, 제5호, pp131-157.
- 윤효진·홍아름·정성도(2018).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혁신학회지」, 제13권, 제2호, pp209-238.
- 이병헌(2005),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혁신 전략과 정부의 R&D 지원 효과”,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8권, 제2호, pp127-152.
- 이병헌·이수욱·위세안(2014),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5호, pp157-171.
- 이수지·김태운(2015), “국가R&D 사업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18권, 제4호, pp590-620.
- 이영훈·송유진(2019), “정부지원자금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부 역량의 매개효과와 기업 성장단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2호, pp31-46.
- 이정수(2011),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연구개발투자, 정부지원 그리고 정보원천의 역할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성준·김장권(2011),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지원전략 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제11권 제11호, pp390-400.
- 장수덕(2007),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위험관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10권, 제1호, pp33-54.
- 장수덕·Christopher Scotte·이상철(2008). “벤처기업의 실패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연령의존관점과 자원기반관점의 통합적 접근”,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11권, 제2호, pp41-63.
- 장수진·김규형·윤상필(2016), “정부지원형태에 따른 기업의 R&D 효율성 차이 사물인터넷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pp713-729.
- 장현주(2016),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효과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20호, pp325-346.
- 장현주(2018),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성장 단계의 조절효과와 반복적 정부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4호, pp251-275.
- 전향화·한광학·강대석(2010), “중국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과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학 논총」, 제30호, pp277-300.
- 정경희(2020),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 조절효과”,



-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1호, pp59-70
- 조하나·김준기(2019),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이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pp1-30
- 중소벤처기업부(2022a), "2022년 업무보고"
- 중소벤처기업부(2022b),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최종열(2010), "기술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특성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창업보육센터 기업을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제13권, 제4호, pp87-108.
- 한국창업보육협회(2020). 「창업보육센터」. Retrieved (2020.10.30.)  
from <https://www.bi.go.kr/incubate/bi/view.do>.
- 황유나·이승환·최광남(2019), "정부의 R&D 투자가 혁신성과와 재정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연구개발 단계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22권, 제4호, pp503-525.

## (2) 국외문헌

- Amit, R. & Schoemaker, P. J.(1993), "Strategic assets and organizational rent".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Vol.14, pp.33-46.
- Anthony, J. H. and Ramesh, K.(1992), "Association between Accounting Performance Measures and Stock Prices: A test of the Life Cycle Hypothe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15, No.2-3, pp.203-227.
- Arrow, K. (1962), "Economic Welfare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for Invention, in Nelson, R. (Ed.), *The Rate and Direction of Inventive Activ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609-625.
- Bagozzi, R. p., Yi, Y. and Philipps, L. W.(1991).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in Organization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6, pp.421-458.
- Barney, J.(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Vol.17, No.1, pp.99-120.
- Basso, A., & Baltar, E., & Andonova, E.(2018), "Startup Innovation Ecosystems in Southern Europe".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No.113872, pp.4 - 9.
- Chen, H. M.(2004), "Performance appraisal across organizational life cycles", *Human Systems Management, IOS Press*.
- Chundakkadan, R., & Sasidharan, S.(2020), "Financial constraints, government support, and firm innovation: empirical evidence from developing economies", *Innovation and Development*, Vol.10, No.3, pp.279-301.
- Czarnitzki, D. & Hottenrott, H.(2011) "R&D investment and financing constraints of small and

- medium-sized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36, No.1, pp.65-83.
- Czarnitzki, D., & Hussinger, k., & Leten, B.(2011), “The Market Value of Blocking Patent Citations”,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 De Marco, & Chiara, E., & Irene, Alberto, D. M.,(2020), “European SMEs’ Engagement in Open Innovation When the Important Thing Is to Win and Not Just to Participate, What Should Innovation Policy Do?”,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No.152, pp.119843.
- Dodge, H. R., Fullerton, S., & Robbins, J. E.(1994). “Stage of the organizational life cycle and competition as mediators of problem perception for small busines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5, No.2, pp.121-134.
- Durst, S., & Gerstlberger, S,(2021), “Financing Responsibl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_An International Overview of Policies and Support Programmes”, *J. Risk Financial Manag.* Vol.14, No.10.
- El Mercurio,(2020). “10 Años de Start-Up Chile: cifras revelan un alto retorno de la inversión, pero bajo financiamiento para negocios liderados por mujeres”. *Santiago, El Mercurio Newspaper*. <https://revistaemprende.cl/start-up-chile-a-10-anos-de-su-creacion-1-960-emprendimientos-apoyados-mas-de-14-mil-empleos-generados-y-us-12-mil-millones-en-ventas-acumuladas/>
- Erramilli, M. K., & Rao, C. P.(1993), “Service Firms’ International Entry-mode Choice: A Modified Transaction-cost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Marketing*, Vol.57, No.3, pp.19-38.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 Algebra and statistics”
-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2018), “Succeeding in the New Era of Technology, Startup Genome”, *Startup Genome & Global Entrepreneurship Network*, pp.21-34.
- Grant, R. M.(1996). “Toward a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No.17, pp.109-122.
- Gupta, A., & Govindarajan, V. (1984), “Business unit strategy, managerial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unit effectiveness at strategy implement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No.27, pp.25-41.
- Hair, J. F., Ringle, C. M., & Sarstedt, M. (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Vol.19, No.2, pp.139-152.
- Hall B. H. and Lerner J.(2009), “The Financing of R&D and Innov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all, B. & Van Reenen, J. (2000), "How Effective are Fiscal Incentives for R&D? A Review of the Evidence", *Research Policy*, Vol.29, No.4-5, pp.449-469.
- Hanks, S., & Chandler, G. N.(1994). "The impact of new venture growth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Frontier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 Isenberg, D.(2011),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ic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Presentation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 Isensee, & Carmen, & Teuteberg, F. & Griese, k. M., & Topi, C.(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Sustainability, and Digitalization in SM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No.275, pp.122944.
- Kaplan. R. S.(1984), "The evolution of management accoun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59, No.3, pp.390-418.
- Kazanjian, R. K. (1988), "Relation of Domination Problems to Stages of Growth in Technology-Based New Ventur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1, No.2, pp.257-279.
- Kazanjian, R. K., & Drazin, R.(1990). "A Stage-contingent Model of Design and Growth for Technology Based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5, No.3, pp.137-150.
- Lecraw, D. J.(1984). "Bargaining Power, Ownership, and Profita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No.15, pp.27-43.
- Lee, S. j., & Kim, T. y. (2015), "A Study on Determinants of National R&D Projects: With the Focus on the National R&D for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the Parts and Materials Industry",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ol.18, No.4, pp.590-620.
- Lin, B. W., & Lee, Y. S., & Hung, S. C.(2006), "R&D Intensity and Commercialization Orientation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59, No.6, pp.679-685.
- Ling, N., Aneiros, G., & View, P.(2020). kNN estimation in functional partial linear modeling. *Statistical Papers*, 61(1), 423-444.
- Liu, Y. H., & Kim, C. Y., & Lee, E. H., & Yoo, J. W.(2022),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le Management Activit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Mediating Effects of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Moderating Effects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Journal of Sustainability*, No.14, pp.1168.

- Mahoney, J. T.(1995), “The management of resources and the resource of managemen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33, No.2, pp.91-101.
- March, J. G.(1991).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 Science*, Vol.2, No.1, pp.71-87.
- Mayuri. H.(2020), “Business Incubators: Meaning, Definition Services”, *Development and Types*, <https://www.businessmanagementideas.com/>
- McWilliams,A., & Siegel, D. (200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correlation or misspecification”.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Vol.21, No.4, pp.603~609.
- Mian, S. (2011), “University’s involvement in technology business incubation: what theory and practice tell us?”, *Int. J. Entrepren. Innov. Manag.* No.13, pp.113 - 121. doi: 10.1504/IJEIM.2011.038854
- Muhammad, A., & Shuangjie L.(2021), “Spurring competitiveness, finan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SMEs through government financial and non-financial support”,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No.23, pp.7860 - 7882
- Nakku, V.B., & Agbola, F.W., & Miles, M.P., & Mahmood, A.(2020),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ME government support program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A developing economy perspectiv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58, No.1, pp.2-31
- NBIA, (2010), “NBIA Preconference, Fundamental of Incubator Management”
- Niven, P. R.(2002), “Balanced scorecard step-by-step : Maximizing performance and maintaining results”. *John Wiley & Sons*.
- Nunnally, J.C., Bernstein, I.H.(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McGraw-Hill”, *New York*.
- O’Regan, N., Ghobadian, A., & Sims, M.(2006). “Fast Tracking Innovation in Manufacturing SMEs”, *Technovation*, Vol.26, No.2, pp.241-261.
- Pearce, D. W. (1983), “The Dictionary of Modern Economics, the 3rd edition”, *Cambridge: Mcamillan Reference Books*.
- Rosário, C., & Varum, C., & Botelho, A.(2022), “Impact of Public Support for Innovation on Company Performance: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Sustainability*, No.14, pp.4731.
- Rumelt, R. P.(1984). “Towards a Strategic Theory of the Firm”, *Competitive Strategic Management*, No.26, pp.556-570.
- Schumpeter, J.(1961),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M., & Bruce, R.(1987). “Five stages of growth in small business”. *Long Large Planning*, Vol.20, No.3, pp.45-52.

- Stevenson, H. H., & Roberts, M. J., & Irving, J. I.(1994). “New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Illinois: Irwin*.
- Thomas, P.(2020), “Efficient Programs to Support Businesses During and After Lockdowns”, *The Review of Corporate Finance Studies*.
- Wang, H., & Liu, Y., & Xiong, W., & Zhu, D.(2019), “Government Support Programs and Private Investments in PPP Markets”,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Vol.22, No.3, pp.499-523.
- Wernerfelt, B.(1984), “A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5, No.2, pp.171-180.
- Werts, C. E., Linn, R. L., & Jöreskog, K. G. (1974). “Intraclass reliability estimates: Testing structural assumption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34, No.1, pp.25-33.
- Xia, Han., & Xiaohui, L., & Tianjiao, X., Lan, G.(2018), “Home-country government support, interstate relations and the subsidiary performance of emerging market multinational enterpris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No.93, pp.160-172.

□ 투고일: 2022.09.06. / 수정일: 2022.11.20. / 게재확정일: 2023.05.12.